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5. Vol. 10, No. 3, 313 - 325

한국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성과 발달시기의 조절효과

심미영[†] 김교현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남녀 중고생 1,022명을 대상으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위험요인(생활스트레스, 우울, 무망감)과 보호요인(낙관주의,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원)의 효과를 검증해보고, 성과 발달시기가 이런 위험 및 보호요인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탐색적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선행연구나 이론으로부터 대표적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생활스트레스', '우울' 과 '무망감'은 단순상관이나 회귀분석 모두에서 자살생각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한편,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대한 보호요인으로 가정한 '낙관주의'와 '자기효능감'은 단순상관에서는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하지 못하거나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사회적 지원'은 단순상관이나 회귀분석 모두에서 자살생각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보호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서 남녀 차이나 발달시기(중, 고등학교)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성은 청소년의 자살생각에서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가정한, 위험 및 보호요인들을 유의하게 조절하지 못했다. 반면, 발달시기는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는 고등학생에 비해 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고등학생의 경우는 중학생에 비해 사회적 지원이 자살생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가 후속 연구와 청소년의 자살 대책에 대해 시사하는 점을 논의했다.

주요어: 자살생각, 위험요인, 보호요인, 발달시기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심미영, (305-764) 대전시 유성구 궁동 충남대학교 심리학과, Tel: (042) 821-6361, E-mail: simmy2001@hanmail.net

최근 들어 고교생을 비롯한 청소년들의 자살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자살은 '비교적 단기간에 걸쳐 스스로의 의지적 행동으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죽음이나 행위'를 의미한다. 자살은 유아기나 아동기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 극단적인 행동으로, 약 15세경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20~24세가 되면 절정에 이르는데, 한국 청소년의 자살은 1990년대 이후 양적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통계청, 1990). 한국 청소년의 자살사망에 관한 자료는 통계청의 '사망원인통계' 자료에서 얻을 수 있다(www.nso.go.kr). 이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연간 1만1천여명이 자살로 사망해 매일 30여명, 매45분에 1명꼴로 자살하고 있다. 지난 93년 사망원인 9위이던 자살이 2003년에 5위로 상승했고, 특히 20대와 30대의 사망원인 1위, 10대의 사망원인 2위가 자살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또한 자살사망률이 최근 20년간 연평균 5%정도씩 증가하여 2002년 기준 OECD 국가 중 자살사망률 4위, 자살증가를 1위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 그러나 자살 현상을 보다 폭 넓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살이라는 최종 결과 외에도 자살 생각, 충동, 의도, 계획, 시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자살생각은 자기 스스로가 의도적으로 죽음을 결행하는 것과 관련된 사고를 의미하며, 자살시도는 이런 생각을 행동적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뜻하며, 자살성공은 자살시도가 성공하여 죽음에 이른 경우를 일컫는다. 자살생각은 자살시도나 완성된 자살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자살 행동을 예측하는 가장 근접한 요인 중 하나이다. 미국의 한 지역사회표본 자료(Roberts, Lewinsohn & Seeley, 1995)에 따르면, 정상 표본 청소년의 41%가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으며 임상 표본에서는 그

정도가 75%로 상승했다. 최근 한국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도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 학생들이 42.9%에 이를 정도로 청소년들에게서 자살생각은 흔한 경험이다(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전교조 보건위원회, 2005).

그러나 모든 청소년들이 자살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며 자살생각의 빈도나 심각도에서 개인차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한국의 청소년들에게서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하는 요인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자살생각을 적게 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보려 했다.

먼저,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으로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온 것은 우울이다(Baumeister, 1990). 우울은, 슬프고 불행한 기분으로 언급되기도 하고 일련의 우울 증상 목록들(예: 우울한 기분, 일상 활동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의 상실 혹은 수면이나 식욕의 변화 등이 일정기간 이상 지속되는 증상들)로 구성된 장애 범주인 우울증을 의미하기도 하는, 정의가 불분명한 구성개념이다(김교현, 2004). 본 연구에서는 우울증(주우울증과 기분부전장애)이 우울의 한 극단을 대표하는 것으로 여기고, 우울한 기분과 우울증을 그 심도에서 차이가 있는 연속체상의 개념으로 본다. 우울증은 아동기를 지나 청소년기에 급격하게 증가하며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발생률과 유병률이 더 높고 이런 경향은 청소년기에 시작해서 성인기까지 지속된다는 일련의 결과가 보고 되고 있다(Weissman et al., 1996). 임상과 경험적 연구의 결과에 기초해서 우울증은 흔히 자살생각을 동반한다고 가정하는데, 이런 생각은 DSM-IV(APA, 1994)의 우울증 진단기준에도 포함되어 있다.

한편, 우울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개념인 무망감(hopelessness) 또한 자살생각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인으로 빈번하게 언급되고 있다. Beck, Kovacs 및 Weissman(1979)은 우울한 기분을 우울증의 정서적인 측면이라고 본다면 무망감은 우울증의 인지적 측면에 해당하며 자살생각과 더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제안하였다.

자살생각과 관련된 잘 알려진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과중한 생활스트레스 경험을 들 수 있다. 생활스트레스 경험과 자살생각 사이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의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위험이 증가한다는 성인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deWilde, Kienhorst, Diekstra & Wolters, 1992) 결과도 있으며, 청소년 표본을 대상으로 일상에서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의 정도와 자살률이 유의한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고 보고한 연구(Hendin, 1987) 결과도 있다. Baumeister(1990)에 따르면, 자살은, 기대하는 상황과 현실 상황 사이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생활스트레스와 그 스트레스가 자신에게 주는 의미를 심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도피하려는 욕구가 합해져 나타난다. 생활스트레스 경험과 자살시도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는(mediate) 요인으로 자살생각을 들 수 있으며, 따라서 생활스트레스 경험은 자살생각의 가능성 있는 위험요인으로 볼 수 있다.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생활 경험(스트레스)과 기분(우울) 및 인지(무망감)가 다양하게 연구된 반면, 자살생각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주는 보호요인으로는 전반적 자기 효능감이나 낙관성과 같은 인지적 요인들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Holden, Mendonca & Serin, 1989). Cole(1989)은

문제해결 기술의 훈련과 자기 효능감을 증가시켜 주는 프로그램이 청소년의 자살예방노력 중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전반적 자기효능감은 다양한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자신의 대처자원에 대한 믿음이 높음을 의미하며 이는 역경에 처했을 때 절망과 자살생각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측된다.

불확실한 가운데서도 장차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반적 믿음에 해당하는 낙관주의(optimism) 역시 역경 속에서도 곳곳하게 대처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낙관적인 사람들은 비관적인 사람들보다 걱정을 더 적게 경험하고 긍정적인 감정은 더 빈번히 경험하며, 관상동맥수술 후에 더 낮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며 회복이 빨랐다(Scheier, Matthews, Owens, Magovern, Lefebvre, Abbott & Carver, 1989). 걱정과 부정적인 감정 경험이 낮은 것은 자살생각을 낮추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이나 친구 등의 친밀한 관계나 교사 및 지역사회로부터 받는 사회적 지원 또한 자살생각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임영식(1997)의 국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이 자신의 주변과 사회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을수록 자살 기도나 자살의 재발이 낮았다. Pfeffer, Klerman, Hurt, Kakuma, Peskin 및 Siefker(1993)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족이나 동료가 가까이 있고 이들에게서 쉽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가 높은 경우는 자살의 위험성이 줄어들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논의한 청소년 자살생각의

위험 및 보호 요인들의 효과는 성이나 발달시기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초기에 있는 중학생의 경우는 우울 경험 정도가 자살생각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나 인지적 추론 능력이 더 발달해 있고 더 많은 사고를 하는 경향이 있는 청소년 후기에 있는 고등학생들에게는 무망감 경험 정도가 자살생각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또한 관계지향적인 성향이 남학생들에 비해 더 강한 여학생들의 자살생각이 대인 및 사회적 관계에서 받는 사회적 지원의 영향을 크게 받는데 반해서, 과제지향적인 성향이 여학생들에 비해 더 강하다고 알려진 남학생들의 자살생각은 자기효능감에 의해 더 크게 좌우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위험요인(생활스트레스 경험, 우울, 무망감)과 보호요인(낙관주의,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원)들의 효과를 확인해 보고, 성과 발달시기(청소년 초기와 중기에 해당하는 중학생과 고등학생)가 이런 위험 및 보호요인들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탐색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대전 및 충남에 소재하는 중학교와 인문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1,065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 가운데 전체 질문지에 누락 없이 응답한 1,022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질문지는 연구자로부터 질문지 응답방법에 대

해 충분한 사전설명을 받은 교사가 정규 수업시간의 일부를 할애해서 집단으로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을 표집하면서 발달시기별로 남녀의 비율을 유사하게 하려고 하였는데, 연구 참여자들의 성과 발달시기별 분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남학생 490명(47.9%), 여학생 532명(52.1%)이었고, 중학교 1학년 96명(9.4%), 2학년 102명(10.0%), 3학년 122명(11.9%),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52명(24.7%), 2학년 254명(24.9%), 3학년 196명(19.2%)이었다.

측정 도구

1) **자살생각 척도(19문항)**: 자살생각을 측정하는 도구로 Beck의 Scale for Suicide Ideation (SSI; Beck, Kovacs, & Weissman, 1979)을 사용하였는데, SSI는 원래 임상면접을 통하여 임상이가 평정하는 3점 척도로 된 검사이다. 그러나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 및 김중술(1990)이 원 문항에 충실하게 자기보고형 질문지로 변형시킨 문항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 값 사용, 이하 동일)는 .85로 나타났다.

2) **생활스트레스 척도(74문항)**: 본 연구에서 사용한 생활스트레스 척도는 김교헌과 전경구(1993)가 개발한 것으로 총 8가지 유형의 대인관계 및 당면과제 스트레스를 합산하여 지난 1년간의 전체 생활스트레스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3) **우울척도(20문항)**: 우울감을 측정하기 위

해 박광배와 신민섭(1990)이 Zung Depression Inventory(ZDI; Zung, 1965)를 변안하여 신뢰도를 검증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70으로 나타났다.

4) 무망감척도(20문항): 희망이 없음을 의미하는 무망감을 측정하기 위해 신민섭(1993)이 Beck Hopelessness Scale(BHPL; Beck & Weissman, 1974)을 변안하여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88로 나타났다.

5) 낙관주의척도(10문항): 낙관주의 척도는 장애에 대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전반적 기대를 측정하는 것으로 Life Orientation Test-Revised (LOT-R; Scheier & Carver, 1994)를 변안하여 사용하였다. filler문항 4개를 포함한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71로 나타났다.

6) 자기효능감척도(10문항): Schwarzer와 Scholz(2000)의 척도를 김교헌과 김원식(2001)이 변안하여 사용한 척도로 인생의 특정한 문제가 아닌 전반적 문제들에 대한 일반적 자기 효능감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는 .91로 나타났다.

7) 사회적 지원척도(8문항): 사회적 지원 측정도구는 Dubow와 Ulman(1989)의 Social Support Appraisal Scale(SSAS)척도, 이경주(1997)의 사회적 지원평가 척도를 참고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친구나 가족 등의 다른 사람

들로부터 정서적인 도움을 추구하는 내용들의 8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다. 본 연구의 척도의 신뢰도는 .89로 나타났다.

자료 분석

각 척도의 신뢰도 분석,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과 중다회귀분석은 SPSS 10.0 for Window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결 과

자살생각과 위험 및 보호 요인간의 단순상관

본 연구에서 한국 청소년 자살생각의 위험요인으로 가정한 생활스트레스, 우울, 및 무망감, 그리고 보호요인으로 가정한 낙관주의, 자기효능감, 및 사회적 지원 사이의 단순상관 계수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한국의 청소년들에게서 자살생각과 그에 대한 위험 및 보호 요인들 사이의 단순 상관관계의 양상을 살펴보면, 연구자들이 기대했던 바대로 생활스트레스 경험($r=.283, p<.001$), 우울($r=.431, p<.001$) 및 무망감($r=.353, p<.001$) 모두 자살생각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그리고 자기효능감($r=-.192, p<.001$), 낙관주의($r=-.198, p<.001$) 및 사회적 지원($r=-.253, p<.001$)은 자살생각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및 보호 요인에 대한 성과 발달시기의 중재효과

성과 발달시기가 본 연구에서 관심을 가진 위험 및 보호 요인들과 자살생각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중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식을 사용했다. 먼저 중재변인별로 중재변인과 위험 및 보호 요인들로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회귀모형을 구성해서 일차적으로 이런 주효과 모형이 유의한가를 살폈다. 그래서 회귀모형이 유의한

경우에, 다음 단계에서는 중재변인과 위험 및 보호 요인들의 상호작용항을 만들어 이런 상호작용항들을 추가한 모형이 주효과 모형의 설명량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지 분석했다. 그 결과를 성과 발달시기로 구분해서 다음의 표 2와 3에 제시했다.

먼저, 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표 2의 결과를 살펴보면, 성과 위험 및 보호 요인들로 구성된 주효과 모형은 한국 청소년 자살생각 변량의 20.7%를 설명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_{7,1014} =$

표 1. 자살생각과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들 사이의 단순상관

	M(SD)	자살 생각	스트레스	우울	무망감	낙관주의	자기 효능감	사회적 지원
자살생각	28.77(5.70)	1.000						
스트레스	125.58(17.67)	.283***	1.000					
우울	8.14(3.53)	.431***	.370***	1.000				
무망감	5.81(4.85)	.353***	.233***	.490***	1.000			
낙관주의	30.35(6.30)	-.198***	-.062	-.302***	-.411***	1.000		
효능감	31.15(7.37)	-.192***	-.191***	-.386***	-.436***	.504***	1.000	
사회적 지원	28.59(6.50)	-.253***	-.244***	-.256***	-.353***	.362***	.447***	1.000

*** $p < .001$; $N = 1022$

표 2 위험 및 보호 요인들과 자살생각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는 성의 효과

Model	B	SE B	β	Partial	Part	Tolerance
성(A)	-0.068	0.170	-0.012	-0.013	-0.011	0.880
스트레스(B)	0.035	0.010	0.109***	0.111	0.100	0.835
우울(C)	0.435	0.057	0.270***	0.233	0.213	0.624
무망감(D)	0.189	0.042	0.161***	0.142	0.127	0.627
낙관주의(E)	-0.064	0.031	-0.035	-0.032	-0.029	0.679
자기효능감(F)	0.064	0.028	0.083*	0.072	0.064	0.600
사회적지원(G)	-0.097	0.029	-0.110**	-0.105	-0.095	0.733

$R^2 = .207$ $F(7,1014) = 37.721$, $p < .001$
 $\Delta R^2 = .003$ $F(6,1008) = 0.638$, $p > .05\#$

* $p < .05$, ** $p < .01$, *** $p < .001$ # 상호작용항의 추가 시 증가되는 설명 변량, 이하 같음

37.721, $p < .001$). 주효과 회귀모형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변인들의 예측 방향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가정한 스트레스($\beta = 0.109$, $p < .001$), 우울($\beta = 0.270$, $p < .001$), 무망감($\beta = 0.161$, $p < .001$)이 각기 독립적으로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의 보호 요인으로 가정한 사회적 지원($\beta = -0.110$, $p < .001$)은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낙관주의($\beta = -0.035$, $p > .05$)는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못했고, 자기효능감($\beta = 0.083$, $p < .05$)은 미약한 설명력을 보였으나 자살생각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성의 조절효과(moderate effect)를 나타내는 상호작용 모형을 추가하는 것에 따르는 자살생각 변량의 설명량 증가분(0.3%)은 유의하지 않았다($F_{6,1008} = 0.638$, $p > .05$).

발달시기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표 3의 결과를

살펴보면, 발달시기와 위험 및 보호 요인들로 구성된 주효과 모형은 한국 청소년 자살생각 변량의 20.7%를 설명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F_{7,1014} = 37.727$, $p < .001$). 주효과 회귀모형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변인들의 예측 방향을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가정한 스트레스($\beta = 0.134$, $p < .001$), 우울($\beta = 0.291$, $p < .001$), 무망감($\beta = 0.160$, $p < .001$)이 각기 독립적으로 자살생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본 연구에서 자살생각의 보호 요인으로 가정한 사회적 지원($\beta = -0.078$, $p < .05$)은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낙관주의($\beta = -0.060$, $p > .05$)와 자기효능감($\beta = 0.075$, $p > .05$)은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못했다.

다음으로, 발달시기의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상호작용 모형을 추가하는 것에 따르는 자살생각 변량의 설명량 증가분(1.7%)이 유의했다($F_{6,1008} =$

표 3. 위험 및 보호 요인들과 자살생각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는 발달시기의 중재효과

Model	B	SE B	β	Partial	Part	Tolerance
발달시기(A)	-0.086	0.274	-0.014	-0.010	-0.009	0.386
스트레스(B)	0.043	0.010	0.134***	0.129	0.114	0.730
우울(C)	0.470	0.060	0.291***	0.239	0.216	0.551
무망감(D)	0.188	0.044	0.160***	0.132	0.118	0.543
낙관주의(E)	-0.054	0.046	-0.060	-0.037	-0.033	0.304
자기효능감(F)	0.058	0.030	0.075	0.061	0.053	0.504
사회적지원(G)	-0.069	0.031	-0.078*	-0.070	-0.062	0.629
R ² = .207 F(7,1014)=37.727, p<.001						
A×B	0.028	0.010	0.086**	0.083	0.074	0.736
A×C	0.093	0.060	0.058	0.049	0.043	0.551
A×D	0.061	0.044	0.052	0.043	0.038	0.543
A×E	0.018	0.046	0.017	0.013	0.011	0.448
A×F	-0.011	0.030	-0.014	-0.011	-0.010	0.506
A×G	0.066	0.031	0.075*	0.067	0.059	0.630
R ² = .224 F(13,1008)=22.437, p<.001						
$\Delta R^2 = .017$ F(6,1008)=3.68, p<.01						

3.68, $p < .05$).

유의한 효과를 보이는 상호작용 항은 발달시기×스트레스($\beta=0.086$, $p < .01$)와 발달시기×사회적 지원($\beta=0.075$, $p < .05$)이었다. 발달시기가 유의한 중재효과를 보이는 상호작용항들의 세부적 양상을 분석해 보았다.

먼저 생활 스트레스 경험 정도와 발달시기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했는데,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중학생·고등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스트레스수준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크기에 차이가 있었다. 중학생들의 스트레스수준($R^2=.153$, $F_{1,318}=57.377$, $p < .001$; $\beta=.391$, $p < .001$)이 고등학생들($R^2=.035$, $F_{1,700}=25.040$, $p < .001$; $\beta=.186$, $p < .001$)에 비해 더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효과 of 구체적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각 변인들의 중앙값(median)을 중심으로 상과 하 집단을 나누어 평균값을 구해 본 결과는 아래의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의 양상을 살펴보면, 발달시기는 스트레스의 자살생각에 대한 효과를 조절시킬 수 있다. 즉, 일상에서 경험하는 생활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이 더 컸다.

사회적 지원수준과 발달시기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했는데, 상호작용효과 of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중학생·고등학생을 구분하여 사회적 지원수준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크기에 차이가 있었다. 고등학생들의 사회적지원 수준($R^2=.062$, $F_{1,700}=46.202$, $p < .001$; $\beta=-.249$, $p < .001$)이 중학생들($R^2=.044$, $F_{1,318}=14.696$, $p < .001$; $\beta=-.210$, $p < .001$)에 비해 더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의 양상을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경우가 중학생에 비해서 사회적 지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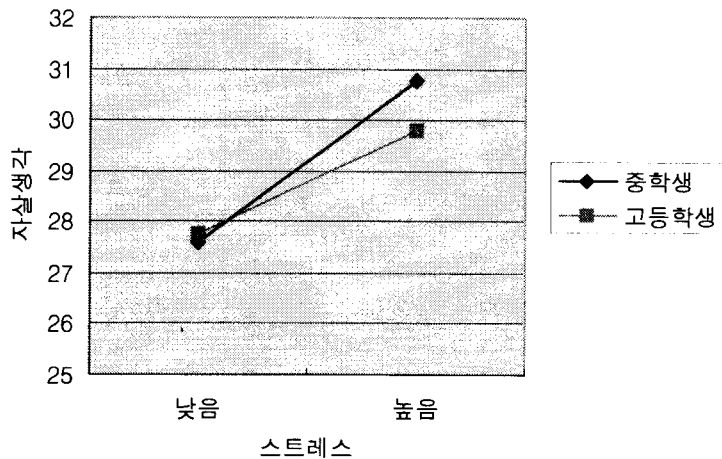


그림 1. 자살생각에 대한 스트레스와 발달시기의 상호작용

논의

본 연구에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확인해보고 이들의 효과가 성이나 발달시기에 의해 중재되는지를 탐색해보려 하였다. 선행연구나 이론으로부터 대표적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는 '생활스트레스' '우울' 및 '무망감'은 단순상관이나 회귀분석 모두에서 자살생각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생활스트레스와 우울 및 무망감은 한국 청소년들에게서도 자살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중요하고 상호 독립적인 위험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반해, 청소년 자살생각의 보호요인으로 가정한 '낙관주의'와 '자기효능감'은 단순상관에서는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였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하지 못하거나 정적 관계를 보였다. 보호요인

으로 가정한 '사회적 지원'의 경우는 단순상관이나 회귀분석 모두에서 자살생각과 유의한 부적 관계를 보이고 있어서 한국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 주요한 보호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낙관주의'와 '자기효능감'이 단순상관에서는 자살생각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으나 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하지 못하거나 기대와 반대되는 방향의 관계를 보인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한 가지 유력한 가능성은 낙관주의의 경우 '자기효능감($r=.504$)' '사회적 지원(.362)' '무망감(-.411)'이나 '우울(-.302)' 등과의 상호상관이 높아서 회귀모형에서는 그 영향력이 감소했다는 가설이다. 이는 '자기효능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기효능감은 '낙관주의(.504)' '무망감(-.436)' 및 '우울(.386)'과 상호상관이 높았다. 자살생각에 대한 위험 및 보호 요인들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분명한 모형을 구성하기 어렵고 본 연구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나 후속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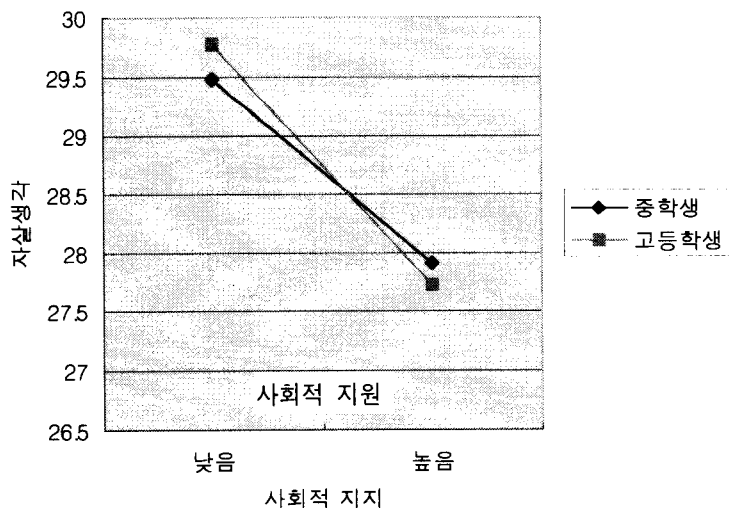


그림 2 자살생각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발달시기의 상호작용

구에서는 이 문제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편, 성의 조절효과를 살펴 본 회귀모형에서 높은 자기효능감이 높은 자살생각을 예측하는 결과는 주목할만한데, 이런 양상(+의 β 값)은 발달시기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회귀모형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런 방향의 결과가 자기효능감이 우울이나 무망감 등과 상호작용하여 자기효능감 단독으로 작용할 때와는 달리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가능성을 시사하는지에 대해서 탐색해 볼 필요가 있겠다. 즉, 무망감이나 우울이 높으면서 자기효능감이 함께 높은 경우가 우울이나 무망감이 높으면서 자기효능감이 낮은 경우보다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할 가능성이 있다.

자살생각에 대한 성과 발달시기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여성이 남성보다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지만 남성이 자살행동을 더 성공적으로 완수한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선행연구들의 결과인 반면, 본 연구에서는 중·고등학생 시기의 한국 청소년들의 자살생각에서 남녀 차이나 발달시기(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기의 여성이 남성에게 비해 자살생각이 더 많다거나(Berman & Jobes, 1991), 청소년 후기가 전기보다 자살생각이 높다는 외국의 선행연구 결과와 불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중,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한국 청소년문화의 특수한 현상을 반영한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의 자살생각에서 성은, 본 연구에서 중요하게 가정한, 위험 및 보호요인을 조절하는 효과가 유의하지 못했다. 반면, 발달시기는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원의 효과를 유의하게 조절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경우는 생활 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고등학생보다 더 강한데 반해, 고등학생의 경우는 사회적 지원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이 중학생보다 더 강하게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청소년 전기에서 후기로 갈수록 스트레스 그 자체에 의해 자살생각이 영향을 받는 정도는 적어지고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유래하는 사회적 지원의 영향은 더 커지리라는 가정은 그럴 듯하다.

최근 청소년들을 비롯한 여러 연령층의 자살 문제가 한국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청소년기의 자살은 성인이나 노년기의 자살에 비해 예방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본 연구에서 얻은 청소년기 자살생각의 위험과 보호 요인 및 이들의 작용방식에 대한 정보는 청소년 자살의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교육정책 개발 등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전교조 보건위원회 (2005). 전국 초·중·고 학생 건강실태와 의식조사.
- 김교현 (2004). 한국 청소년의 우울과 자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55-68.
- 김교현, 김원식 (2001). 한국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체계척도.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6(2), 19-36
- 김교현, 전경구 (1993). 중학생용 생활스트레스와 대처척도의 개발연구 I.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7-217.

- 박광배, 신민섭 (1990). 고등학생의 대학입시목표와 자살생각.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 20-32.
- 신민섭 (1993). 자살기제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자기도피 척도의 타당화.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신민섭, 박광배, 오경자와 김종술 (1990). 자살성향에 관한 연구: 우울-절망-자살간의 구조적 관계에 대한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9, 20-32.
- 이경주 (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영식 (1997). 청소년기 우울의 특징과 문제행동. *사회과학연구*, 제10집, 108-133, 중앙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통계청 (1990). 사망원인통계연보.
-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APA). (1994).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4th ed.; DSM-IV). Washington, DC: Author.
- Baumeister, R. F. (1990). Suicide as escape from self. *Psychological Review*, 97, 90-113.
- Beck, A. T., Kovacs, M. & Weissman, A. (1979). Assessment of suicidal intention: The scale for suicide ideat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7, 343-352.
- Beck, A. T., Weissman, A., Lester, D., & Trexler, L. (1974). The measurement of pessimism: the hopelessness scal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2, 861-865.
- Berman, A. L., & Jobes, D. A. (1991). *Adolescent suicide: Assessment and interven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Cole, D. A. (1989). Psychopathology of adolescent suicide: Hopelessness, coping beliefs, and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8, 248-255.
- deWilde, E. J., Kienhorst, I. C. W. M., Diekstra, R. F. W., & Wolters, W. H. G. (1992).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and life events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9, 45-51.
- Dubow, E. F. & Ulman, D. G. (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 1, 52-64.
- Hendin, H. (1987). Youth suicide: A psychosocial perspective. *Suicide and Life Threatening Behavior*, 17, 151-165
- Holden, R. R., Mendonca, J. D., & Serin, R. C. (1989). Suicide, hopelessness, and social desirability: A test of an interaction model.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500-504.
- Lewinsohn, P. M. (1994).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future adolescent suicide attemp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2, 297-305.
- Pfeffer, C. R., Klerman, G. L., Hurt, S. W., Kakuma, T., Peskin, J. R., & Siefker, C. A. (1993). Suicide children grow up: Rates and psychosocial risk factors for suicide attempts during follow up.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2(1), 106-113.
- Roberts, R. E., Lewinsohn, P. M., & Seeley J. R. (1995). Symptoms of DSM-III-R major depression in adolescence: Evidence from an epidemiologic survey.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 Psychiatry*, 34, 1609-1617.
- Scheier, M. F., Carver, C. S. & Bridges, M. W. (1994). Distinguishing optimism from neuroticism (and trait anxiety, self-mastery, and self-esteem): A reevaluation of the Life Orientation Tes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 1063-1078.
- Scheier, M. F., Matthews, K. A., Owens, J. F., Magovern, G. J., Lefebvre, R. C., Abbott, R. A. and Carver, C. S. (1989) 'Dispositional optimism and recovery from coronary artery bypass surgery: the beneficial effects 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24-1040.
- Schwarzer, R., & Scholz, U. (2000). Cross-cultural assessment of coping resources: The general perceived self-efficacy scale. *Paper presented at the 2000 Asian Congress of Health Psychology: Health psychology and culture*. 104-108. Tokyo, Japan, August 28-29.
- Shaffer, D. and Fisher, P. (1981). The epidemiology of suicide in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0, 545-465.
- Weissman, M. M., Bland, R. C., Canino, G. J., Faravelli, Greenwald, S., Hwu, H. G., Joyce, P. R, Karam, E. G., Lee, C. K., Lellouch, J., Wickramatane, P. J., Wittchen, H. U., & Yeh, E. K. (1996). Cross-national epidemiology of major depression and bipolar disorder. *Journal of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76, 293-299.
- Zung, W. W. K. (1965). A self-rat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12, 63-70.
- 원고접수 : 2005년 6월 16일
게재결정 : 2005년 8월 23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5. Vol. 10, No. 3, 313 - 325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Suicidal Ideations of Korean Adolescents: Moderating Effect of Sex and Developmental Period

Mi-Young Sim Kyo-Heon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isk(stress, depression, hopelessness) and protective factors(optimism, self-efficacy, social support) for suicidal ideations of Korean adolescents, and also investigated the moderating effects of sex and developmental period on their risk and protective factors. 1,022 Korean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students(male, N=490; female, N=532) participated in a self-report questionnaire survey.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life stress', 'depression' and 'hopelessness' were related positively with suicidal ideations both in the simple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On the other hand, 'optimism' and 'self-efficacy', which showed a negative relationship in simple correlation, showed an insignificant or positive relation with suicidal ideations in the regression analysis. But 'social support' negatively related with suicidal ideation both in the simple correlation and regression analysi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for suicidal ideations did not moderated by sex. Otherwise, the developmental period showed a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on stress and social support. Life stress influence much more on the suicidal ideation for junior high school students than senior high school students. On the other hand, social support influenced much more on the suicidal ideation for senior high school students tha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Finally, result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in relation with implications for interventions of adolescent's suicide and previous studies.

Keywords: suicidal ideation, risk factor, protective factor, developmental period